

전남도교육청 '무안 남악 시대'

28일~4월 6일 청사 이전 완료
"전남교육 미래 여는 원동력으로"

전남도교육청이 오는 4월 광주 매곡동 청사를 떠나 무안 남악 시대를 연다.

전남도교육청은 23일 "남악 신청사가 완공됨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모든 이전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 교육청의 남악 이전은 1982년 북구 매곡동 청사 개청 이후 27년 만이다.

남악 신청사는 전남도청 옆 부지 3만3천661㎡에 전체면적 1만5천701㎡, 지하 2층 지상 8층 규모로 378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건립했으며, 2006년 11월 착공해 2년 5개월이 걸렸다.

외부 모습은 날아오르는 새의 날개 형상으로 세계와 미래로 응비하는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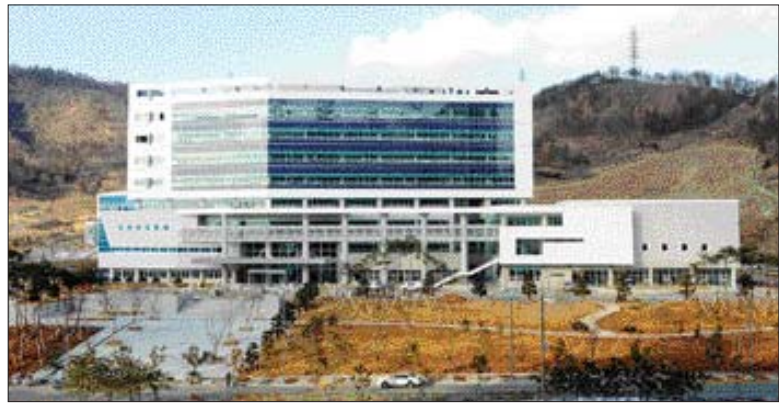
남교육의 지표를 표현하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등 각 분야의 시스템을 통합한 지능형 빌딩 시스템(IBS)을 구축, 직원의 업무능률과 민원인 편의를 극대화했으며 태양광발전시설을 활용한 절전형 건물로 지어졌다.

건물 바로 옆에는 전남도청과 도의회 건물이 들어서 있으며, 법원과 검찰, 농협 도지역본부 등 관계기관 등도 인근으로 이전을 서두르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미 지난 1월 매곡동 청사에 있던 향나무와 단풍나무 등 수령 30년 이상 고목 74그루를 신 청사로 옮겼다.

이후 오는 28~29일에는 교육행정 정보시스템을 옮길 예정인데, 외부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에 지하 2층, 지상 8층 규모로 건립된 전남도교육청 신청사가 웅장한 모습을 뽐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환경에 민감한 탓에 최첨단 무진동 차량을 이용한다.

각 과별 이전은 오는 4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 동안 진행된다.

3일엔 ▲총무과 ▲감사담당관 ▲혁신복지담당관 ▲중등교육과 ▲교육정보화과 등 5개 과가, 4일은 ▲과 학산업교육과 ▲평생교육과 ▲기획 예산과 ▲행정과, 5일은 ▲초등교육

과 ▲재무과 ▲시설과, 마지막날인 6일에는 의사가 이사사를 한다.

김장환 전남도교육감은 "휴일을 활용하고, 이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면서 "단순한 청사 이전을 넘어 전남교육의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는 원동력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4대 종교 함께 2월 2회 재활용 장터

가톨릭과 개신교, 불교, 원불교 등 광주지역 4대 종교가 함께 매월 두 차례씩 재활용 장터를 개설한다.

23일 광주 무각사에 따르면 28일 오전 11시 상무지구 5·18기념공원 내 무각사 주차장에서 천주교 광주대교구의 김희중 총대리주교와 원불교 광주전남교구의 김현 교구장, 광주 무진교회 장관 목사, 무각사 주지 청학스님 등 4대 종교 지도자가 나서 재활용 장터 "보물섬"을 연다.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열리는 재활용 장터는 가족과 학교, 기업, 동호회 등 누구나 참여해 중고 물품이나 개인 창작품을 사고 팔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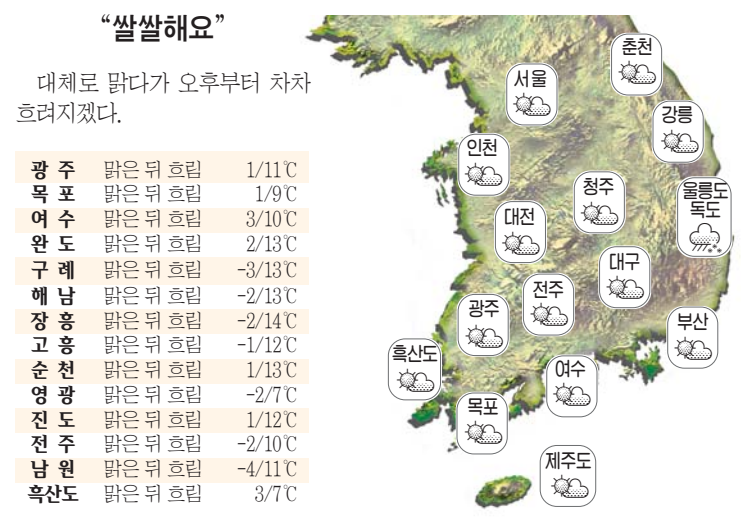
판매수익금의 10%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쓰이며 장터에 참가해 기부를 하면 기부증서를, 중고생들에게는 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준다.

광주 무각사 관계자는 "종교화합과 이웃사랑을 위한 새로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062-385-0108.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6시 31분 해질 18시 47분 달돋이 04시 59분 달질 16시 29분



바다	풍향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앞바다	북~북동	1.0~1.5m	목포 00:28	06:02
면바다	북~북동	1.0~2.0m	13:03	18:29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	1.0~1.5m	여수 08:03	01:36
면바다	북~북동	1.0~2.0m	20:07	14:04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25(수)	26(목)	27(금)	28(토)	29(일)	30(월)
날씨	☀	☀	☀	☀	☀	☀
최저/최고	0/8	-1/11	0/12	1/12	2/13	2/11

'절끔 비' 강수량 부족 5월까지 간다

최근 간헐적으로 비가 내려 메마른 땅을 적셨지만 강수량 부족현상은 올 봄 내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기상청에 따르면 4월 상·중순에는 남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예년과 비슷한 양(62.5mm)의 비가 내리겠다.

하지만 내달 하순에는 기압골이 주로 북쪽과 남쪽으로 치우쳐 지나가면서 건조한 날씨가 이어져 4월의 전체 강수량은 평년(95.3mm)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5월(97.3mm)과 6월(190.3mm)에는 예년과 비슷한 양의 비가 내릴 전망이다.

기상청은 "올 봄의 예상 강수량은 평년보다 조금 적은 편"이라며 "이동성 고기압과 동서 고압대의 영향을 주로 받아 광주·전남지역에 전반적으로 건조한 날이 많겠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조선대 홍보 내게 맡기세요" 23일 오후 조선대학교 전자정보공과대학 IT홀에서 열린 '제12기 조선대 홍보도우미 선발대회'에 참가한 한 학생이 자신의 장기를 선보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시 행정9급 공채 경쟁률 170.8대 1

광주시 일반직 행정9급 공채 경쟁률이 170.8대 1을 기록, 극심한 실업난 속에 공무원에 대한 높은 인기를 반영했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2009년도 제1회 공개(제한) 경쟁 임용시험 응시

원서 접수 결과 일반직 행정9급은 19명 모집에 무려 3천245명이 응시해 170.8대 1로 최고 경쟁률을 보였다.

소방직의 경우 여성 일반소방분야가 3명 모집에 73명이 응시해 24.3대 1로 경쟁률을 기록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전체적으로는 178명 모집에 5천444명이 접수해 평균 30.6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직렬별로는 일반직이 평균 72대 1, 소방직은 7.9대 1을 기록했다.

올해부터는 응시연령 상한제가 폐지돼 만 33세 이상 접수자가 905명으로 전체 응시자의 16.7%를 차지했다.

도 교육청은 앞으로 원어민 강사들이 열악한 생활 여건 등으로 근무를 꺼려하는 도서벽지 및 농산어촌을 중점으로 원어민 원격 화상 강의를 확대할 예정이다.

전남 농·산·어촌 128개 초등학교 원어민 영어 화상강의

전남지역 농·산·어촌 128개 초등학교 학생들이 원어민들의 영어 화상강의를 받는다.

23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7월 10일까지 신안, 진도, 완도, 고흥, 여수 등 5개 지역 75개분교와 전교생 60명 이하 소규모 53개교 등 모두 128개교 학생 1천명에게 쌍방향 원어민 원격 화상 강의를 지원한다.

이번 원어민 화상교육에는 100명의 원어민 강사가 배치됐으며, 매주 4일간(월·화·목·금)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진행된다.

학생들이 원어민과 대화를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원어민 화상강의는 지난 1월부터 2개월간 신안·고흥 지역 초등학교 200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됐으며, 참여학생 중 90%가 큰 만족감을 나타냈다.

도 교육청은 앞으로 원어민 강사들이 열악한 생활 여건 등으로 근무를 꺼려하는 도서벽지 및 농산어촌을 중점으로 원어민 원격 화상 강의를 확대할 예정이다. /연활뉴스

임태준 전남도교육청 중등과장은 "상대적으로 교육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원어민 화상 강의를 비롯한 각종 최첨단 교육 시스템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교원 63% 국민 76% 교원평가 도입 찬성

정부가 추진하는 교원평가제 도입에 교원의 63%, 일반 국민의 76%가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12~17일 리서치앤리서치를 통해 교장, 교감을 포함한 초·중·고 교원 500명과 19세 이상 성인남녀 513명 등 총 1천13명을 조사해 23일 발표한 설문결과에 따르면 교원의 63%, 일반국민의 76.3%가 교원평가제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원 가운데 교장은 응답자의 90%가 찬성했다고 교과부는 밝혔다. /연활뉴스

이석형 함평군수 부친따라 장기기증

이석형 함평군수가 지난 아버지 이상민(74)씨의 뒤를 이어 사람의 장기기증 운동본부에 장기기증을 약속했다는 말에 이 군수가 같은 달 23일 똑같은 내용의 장기기증 서약서를 작성했다.

23일 함평군에 따르면 이 군수는 "아버지 이상민(74)씨의 뒤를 이어 사람의 장기기증 운동본부에 장기기증을 약속했다."

그동안 장기기증과 헌혈 등을 통한 사회봉사에 관심이 많았던 이 군수는 평소 장기기증을 하고 싶었지만 부모님이 살아 계시어 선

뜻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 그러던 중 아버지 이상민씨가 지난달 19일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에 사후 각막기증과 뇌사 때 전 장기기증을 약속했다는 말에 이 군수가 같은 달 23일 똑같은 내용의 장기기증 서약서를 작성했다.

이 군수는 "평소 사후 수목장을 지르기로 갖고 있었다"며 "자칫 부모에게 불효가 될까 그동안 실행에 옮기지 못했는데 원칙주의자인 아버지가 장기기증을 했다는 말에 선뜻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함평=박영진기자 pyj4079@

한 톨이라도 아껴야 할 요즘..

사무실 통신비 부담되지요?



▶ 후조건 50% 이상 절감시켜 드립니다.

▶ 단말기(Gateway)도 무상으로 지원합니다.

1566-9927